

과학 대 종교 논쟁

과학과 종교는 대화가 가능한가? 지난 4월 미국에서는 노벨물리학 수상자인 와인버그와 성공회 목사인 폴킹혼이 '과학과 종교간의 건설적인 대화'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벌였다. 이들 두사람은 신의 존재와 사람의 선악행위 등을 토론대상으로 올려 놓았지만 신학의 권위는 계시에 있고 과학의 권위는 실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토론은 끝났다.



姜慶植
(미 브라운대학 물리학 교수)

지난 4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과학과 종교간의 건설적인 대화' 라는 제목으로 노벨물리학 수상자 Steven Weinberg와 입자물리학자에서 성공회 목사로 전향하여 기사(knight) 작위를 받은 John Polkinghorne 두사람의 대결이 벌어졌다.

이 행사는 3일간에 걸쳐 'Cosmic Questions' 라는 학술회의 끝에 마련된 이 회의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으로써, Templeton재단의 수백만달러 지원과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의 주최로 이루어졌는데, 이 역사적인 대결의 장소도 또한 1920년에 우주의 크기에 관하여 Harlow Shapley와 Heber Curtis가 유명한

토론을 했던 국립자연역사박물관의 대강당 바로 그곳이었다.

물리학자와 목사의 대결

과연 과학과 종교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한가?

이러한 대화는 최근 들어 이룩된 우주학(Cosmology)의 미묘한 발전에 자극되어 번창하고 있는 현상이다. 많은 관심있는 사람들은 와인버그-폴킹혼 대결을 무신론자 물리학자와 유신론자 목사가 생방송 관객 앞에서 우주가 신의 창조물인지 아닌지를 규명해 보라는 각본으로 기획된 희극쇼 Jerry Springer Show를 관람하게 되는 것과 같은 흥분마저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 무신론자 Steven Weinberg박사 (왼쪽)와 John Polkinghorne목사

과학과 종교 사이의 논쟁은 옛부터 서로 어색하게 때로는 적대시되어 온 것으로, 지동설을 제창하고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을 받은 것이라든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진화론 강의로 미국 남부의 어느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소위 '원숭이 재판'을 받은 것들은 너무나 유명한 일하기에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더욱 흥미로웠던 것이다. 그러나 와인버그-폴킹혼의 대결은 제리 스프링거 쇼 보다는 훨씬 품위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요즈음 흔히 볼 수 있는 학회나 강연, 혹은 패널 토론자 사이에서 서로 서로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논쟁 대결보다는 훨씬 생기를 띤 것이었고, 때로는 어색하면서도 상대편을 신랄하게 공격하기도 했던 것이다.

와인버그는 아예 과학과 종교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자신은 믿는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대화 때문에 종교가 가질 수도 없는 일종의 합리 타당성을 부여받게 된다고 했다.

이런 목적으로 템플튼재단이 쓰는 돈과 격증하고 있는 이같은 대화현상을 개탄하면서, 그러나 차차 이런 일이 식어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와인버그는 그가 아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무신론자라고 일컬을 만큼 종교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그런대로 우주학에서의 최근의 발전이 얼마만큼이나 과학자들로 하여금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었음은 사실이다.

폴킹혼은 면밀하게 조준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의 법칙들에 관한 지식이 주어졌다고 할 때, 대개 두가지의 광범위한 범주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 하나는 많은 우주가 존재하는 가운데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그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오직 한개만의 우리들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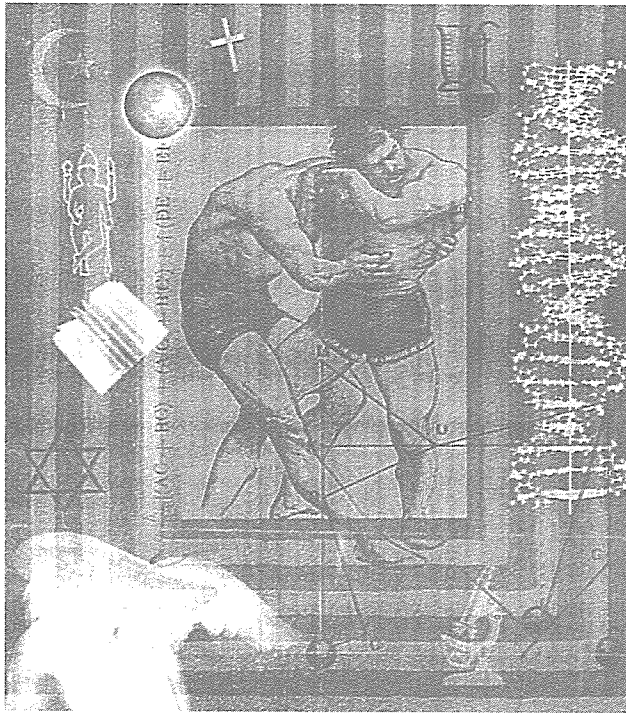
신의 존재·인간 선악 초점

그러나 성격상 이 두가지 설명 모두가 형이상학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자기자신은 신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여운을 허용했다.

이에 대하여 와인버그는 동의는 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에 초점을 두는 일방적인 합리성은 신비스러운 궤변(mumbo jumbo)이거나 단순한 상식일지도 모른다고 대응했다.

그는 탄소핵자의 에너지 준위처럼 인간의 존재를 허용하기에 특별히 알맞는 값을 설명하는 물리학 법칙의 예들은 그에게 특별히 인상적인 것이 못된다고 말하면서, 신의 존재 여부를 대답하기엔 아직도 우리들은 기본적인 물리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폴킹혼목사는 마치 음악을 물리학의 진동이론으로 기술하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우주가 설계된 창조물이나 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과학만으로는 대답해 줄 수 없다고 응하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 과연 과학과 종교와의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신을 믿으면 우주의 존재나 종교적 경험 현상과 인간의 의식같은 폭넓은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반에 들어서서는 대답이 개인적인 취향에 의존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예를 들면 와인버그가 종교를 믿건 안 믿건 좋은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쁜 사람은 악행을 하게 마련이고, 오히려 좋은 사람이 악행을 하는 경우 종교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꼬집는가 하면, 폴킹혼은 종교적 계시나 변환이 악인으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인도해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비로운 신이 창조한 세계라면 왜 그 속에서 악한 일이 행해지고 있느냐 하는 영원한 질문에 대해서, 폴킹혼목사는 진화론을 예로 들어 과학이

신학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신학자들도 지금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자체가 다시 창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점에 대하여 와인버그는 신학이론이 무한량 변화에 적응하는게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물리학에선

최소한 논리적 강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격론이 마침내는 와인버그로 하여금 만약 이 대강당에서 갑자기 불붙은 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면, 자기는 신의 존재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이 없는 우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폴킹혼은 그렇다면 이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문제인데 그런 짓을 할 따위의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 신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청소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웃겼다.

하여간 신학의 권위는 계시에 있고 과학의 권위는 선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토론은 끝났다. 말하자면 불길에 쌓인 칼이 내려치지 않는 한, 과학과 종교의 화합적인 해결은 없을 것이다. ⑤